

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보도현황

<서울신문 조간> 2016. 7.13.(수)

서울신문

2016년 07월 13일 수요일
013면

‘원·하청 상생’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탄생

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들 결성
고용노동부, 2억 2850만원 지원

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 근로자 복지기금을 결성한 첫 사례가 나왔다.

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첫 대상으로 ‘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’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. 이 법인에는 2억 2850만원을 지원한다.

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, 올해 1월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.

현대엘리베이터 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 부문 협력업체 57개 사로 구성됐다.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모두 5700만원을 출연

했다. 현대엘리베이터는 협력업체 복지 지원을 위해 6억 5800만원을 출연했다. 이 기금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들의 학비 지원과 근로자 주택 구입 자금 보조, 재난구호금 지급 등에 사용된다.

고용부는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억원(사업주 출연분의 50% 한도)까지 지원한다.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2억원(출연금의 50% 한도)을 추가로 지원한다. 고용부는 올해 20개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도울 방침이다.

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“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원·하청 간 상생협력이라는 노동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이번 사례가 계기가 돼 많은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정현용 기자 junghy77@seoul.co.kr

<인터넷 뉴스>

대기업-협력업체 힘 모아 근로복지기금 만들어

송고시간 : 2016/07/12 12:00

(서울=연합뉴스) 안승섭 기자 =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 근로자 복지기금을 결성한 첫 사례가 나왔다.

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첫 대상으로 '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'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. 이 법인에는 2억2천850만원을 지원한다.

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, 올해 1월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.

이 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 부문 협력업체 57개 사로 구성됐다.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해 총 5천700만원을 출연했고, 현대엘리베이터는 협력업체 복지 지원을 위해 6억5천8백만원을 출연했다.

기금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들의 학비 지원,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, 재난구호금 지급 등에 쓰인다.

고용부는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억원(사업주 출연분의 50% 한도)까지 지원한다.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2억원(출연금의 50% 한도)을 추가로 지원한다.

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“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원·하청 간 상생협력이라는 노동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이번 사례가 계기가 돼 많은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고용부는 올해 20개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.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2016/07/12 12:00

* (기타) 아시아경제, 건설경제신문, 뉴스토마토, 이투데이, 파이낸셜뉴스, 서울경제, 뉴스1, sbs뉴스, 헤럴드경제, 매일경제, 이데일리, 정책브리핑 등 12개소